

나주시, 청년 문화복지카드 3차 모집...연 25만 원 지원

9월 14일~10월 8일, 19~28세 청년 모집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앞선 두 차례 모집에서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의 지원 누락을 최소화하고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추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월 14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9월 14일 이전부터 기존 전남권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나주시 청년으로 출생연도 기준 1998년부터 2007년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25만 원이며 체크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올해 나주시의 전체 지원 대상

은 6천326명이다. 상반기 1차 모집에서는 3천828명이 선정됐으며 지난 8월 진행한 2차 모집에서는 958명이 추가 신청해 현재까지 총 4천 786명이 접수했다.

나주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남은 1천540명을 대상으로 이번 3차 모집을 추진한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권역)에서 도서 구입을 비롯해 영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등 다양한 문화·복지 및 자기계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문수 기자

담양,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소비 촉진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5일 창평 임시시장 일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평임시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담양상설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서 이어진다.

군은 장보기 행사와 함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도 진행해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석을 맞아 담양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특별할인도 시행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총전 시 15%를 할인하고 사용액의 2%를 추가 캐시백으로 제공해 최대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민 기자

화순, 2027년 풍수해생환경 정비사업 공모 선정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생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이양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09억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양지구는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과 내수 배수 불량 등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지역이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한다.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하천·소하천 2.7km 정비, 배수펌프장 2개소 신설, 배수로 정비와 사방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문수 기자

영광, 태양광 안심가로등 22본 설치...법성리 밝힌다

한수원 후원 공모사업 선정...야간 보행환경 개선·범죄예방 기대



태양광 안심가로등 사진. /영광군청 제공

치한 지역 특성상 야간보행 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장애인·아동·청소년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보행 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영광군은 이번 안심가로등 설치를 통해 야간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정 사회복지과장은 "태양광 안심가로등이 주민들의 밤길을 밝히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안전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 안심가로등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 전남광주생활체육대축전서 성장장성 빛내

22개 시군 6783명 참가...AI·미래산업 담은 역대급 생활체육축제



김한중 장성군수가 14일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흔들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을 뜨겁게 달군 전남 생활체육인의 축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에 열린 제3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체육대축전이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홍길동체육관에서 폐막식을 가졌다.

'뛰어라 전남광주, 빛나라 장성! 통합의 시대, 더 큰 미래로!'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동호인 선수단 6783명이 참가해 30개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앞선 12일 옐로우시티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동호인 선수단과 관람객을 비롯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김한중 장성군수, 송진호 전남체육회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하며 총 8000여 명의 발걸음이 모였다.

식전공연으로 장성군 홍보대사인 가수 김태연의 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개최지 장성군의 미래산업인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소재로 한 무대 연출도 돋보였다. 선수단 입장 순서에선 시군별로 지

역의 특색과 축제 등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내내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객석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식후 축하공연으로는 포레스텔라, 에일리, 박지현, 장민호 등이 출연해 생활체육대축전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는 '생활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열렸다. 동호인들은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장성군은 종목별로 스포츠, 게이트볼 1위 스파크골프, 바둑, 궁도 개인전 2위 스포츠, 족구 종합, 궁도 단체전 각각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광중 기자

